

문화

아이들 손잡고 전시장... 공연장... 도서관으로...

어린이날 '문화선물' 해주세요



탁본, 목판찍기 등 문화체험 행사.

해마다 맞이하는 어린이날. 집에 있자니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놀이 동산에 가지니 교통체증과 수많은 인파가 부담스럽다.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행사 줄이어

과 공연장에서는 어린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가족에게 추억을 남겨 줄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국립광주박물관은 5일 오전 9시~오후 6시 박물관 일대에서 가족과 함께 영화도 보고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 여행'을 떠난다.

기외에 꽃 그리기, 목판 찍기 등 문화를 체험하고, 사방치기 등 전통 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또 오후 2시에는 가족과 함께 무료로 애니메이션 영화 '다짜꾸이'를 관람할 수 있다.

또 전통문양으로 얼굴을 장식할 수 있는 페이스 페인팅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문의 062-570-7061.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날 낮12시~오후5시 미술관 본관, 어린이문화센터 일대에서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를 연다. 가족이 함께 흥을 주물러 도

자를 빛는 '도에체합, 다양한 풍선으로 과일과 동물을 만들어 보는 등 알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날은 또 미술관에서 열리는 '12피 동물이 야기' '정적의 시' '신소장품전' 등의 전시를 무료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13-7131.

무등현대미술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3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어린이 미술 체험 프로그램인 '예술체합 그리고 놀이-또 하나의 얼굴+광주의 얼굴'을 마련한다. 5·18민중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직접 파라솔에 '5월 광주'의 다양한 얼굴을 색칠하는 행사다. 문의 062-223-6677.

이 밖에 광주신세계갤러리는 6일까지 제15회 광주신세계 어린이환경그림전시 수상작을 모은 '초록 숲의 꿈'전을 열고, 일광갤러리는 오는 8일 오후 1시~5시 카네이션만들기, 한지공예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88회 어린이 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공연 모습.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이 준비한 어린이날 특별공연이 5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다.

'국악이 좋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전국의 유일한 국공립 어린이국악예술단인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의 정기 공연을 겸하는 무대로 1년 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다.

연주 레퍼토리는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창작 무용 '시집가는 날'과 '신검무', 25현 가야금 곡 '갑돌이와 갑순이' 등이다. 또 해학과 감동이 묻어있는 창극 '춘향전' 중 '어사출도' 대목과 신명난 타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삼고무'도 눈길을 끈다. 문의 061-286-5427.

광주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도서관 관장 김범일)은 5일 어린이들

을 위한 이야기교실·영화 상영 등 특별행사를 연다.

무등도서관에서는 오전 10시에 최신행화 '국가대표'를 상영하고, 아이들 얼굴에 예쁜 그림을 그려 주는 페이스 페인팅(오후 1시~3시), 이야기교실(오후 3시~4시)을 운영한다. 사직도서관에서는 영화 '아이에이지 3'와 '업'을 상영하고, 산수도서관에서는 '얼라의 모험'과 '슈렉3' 등 애니메이션을 상영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7730

광주시 북구청은 4일 오후 3시 문화근린공원 일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날 기념식과 함께 페이스페인팅, 풍선만들기, 종이공예, 가족과 함께 하는 웰빙 요리장,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 55회 호남예술제 본선 진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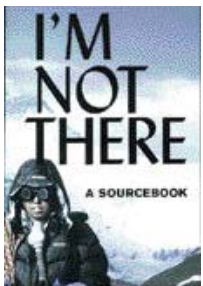
Table listing winners of the 55th Honam Art Festival. Columns include instrument type (e.g., Piano), name, and age/grade.

Table listing winners of the 55th Honam Art Festival. Columns include instrument type (e.g., Piano), name, and age/grade.

또 작가 190인의 작품 한눈에

광주비엔날레 자료집 내

아시아 미술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집이 나왔다. 광주비엔날레 제8회 광주비엔날레(9월3~11월7일) 프로젝트 일환으로 아시아 작가 190명의 간단한 소개와 작품 이미지를 모은 '나는 거기 없다'(시집)를 발간했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총감독이 지난해 부터 이번 비엔날레 참여 작가 선정을 위해 아시아 지역 작가 리서치를 벌였는데, 그 성과물을 담은 것이다. 출판에 위해 30개국 80명여의 큐레이터, 저술자, 비평가 등이 참여해 신진작가와 자신들의 국가에서 간과되었던 주요한 작가들을 추천했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감독은 "이 자료집에는 하나의 생각이나 취향으로는 쉽게 이해되거나 정리되기 힘든, 다양한 작가들과 작품들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2-608-4241. <광주비엔날레 제8회 5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이성부 시인

한림문학상 수상



한림문학재단(이사장 박형철)이 지역 문단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제13회 한림문학상 수상자로 이성부(68·시집) 시인을 선정했다.

올해로 등단 50년을 맞는 이 시인은 고등학교 신분이던 1960년 옛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신춘문예를 통해서 문단에 나왔다. 1962년 '현대문학'에 추천되어 문단에 본격 데뷔했고 1967년 다시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1980년 한국일보 기자로 있던 그해 5월 광주의 비극을 목도하면서 언어로 육하는 언론의 비열한 행위에 회의를 느껴 3년간 절필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연작시 '전라도'를 발표하면서 당대의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현실참여적 시 세계를 확립해나갔다. 시집 '야간산행' '지리산', 산문집 '산길' '눈 뜨면 성큼 산이 다가오네' 등을 내며 '산의 시인'으로 불렸다.

5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간암을 이겨냈으며 최근 '내가 걷는 백두대간' 연작의 완결편 격인 시집 '도둑 산행'을 내고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광주시 동구 소재 동광주동구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226-181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미애 독창회

4일 광주문예회관



소프라노 박미애 독창회가 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선보였던 재즈 음반 'me myself & jazz' 발매와 광주대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연주회에서 앨범 수록곡들을 들려준다.

1부에서는 현대 카바레송으로 유명한 윌리엄 불럼의 대표작들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색소폰(배경민), 콘트라베이스(박영렬) 등 재즈 밴드와 어우러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삽입곡인 'Once upon a dream', 영화 '디어 헌터' 중 'He was beautiful', 오페라 '잔니스 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서울대와 남가주대학교에서 수학한 박씨는 현재 광주대 교수로 재직하며 한소리회, 성우회 등 음악그룹을 이끌고 있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62-227-77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JINAIR flights to Osaka. Features an airplane, Osaka Castle,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and Japanes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Land Bank and JINAIR.